

대구대,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

홍성철 기자 | 승인 2022.03.24 17:25



사진출처=대구대

[오늘경제 = 홍성철 기자]

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지난 17일 사범대학 1호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최했다. 해당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 선배가 멘토로서 멘티인 후배들과 함께 대화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 열린다.

1차 프로그램에서는 KOICA(한국국제협력단) 키르기스스탄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에밀베코바 아이살큰 씨가 '유학생의 진로 및 취업'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. 특강자는 성공적인 취업 노하우와 유학 제도를 설명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적응과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멘토링을 했다.

2차 프로그램은 오는 31일 정란희 한중국제문화교육연구원장이 '유학생 제도와 인권'주제의 특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.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대구대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.

한편,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을 열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.

저작권자 © 오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홍성철 기자